

後 綬 小 考

(全昌君 柳廷亮의 遺物에 붙여서)

柳 喜 卿

머리말	Ⅰ. 古代 中國에서의 綬의 發生 淵源과 變遷
Ⅱ. 朝鮮朝 冠服에 보이는 綬	Ⅲ. 遺物에서 본 綬
맺음말	

머 리 말

여기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後綬는 1982年 楊州郡 道峰山 기슭에 자리잡은 全昌君 柳廷亮의 墓에서 出土된 것이다.

柳廷亮은 朝鮮朝 第14代 宣祖 24年(1591年) 10月 初 7日에 태어났는 바, 祖父는 領議政을 지낸 小北派의 領袖인 全陽府院君 柳永慶이고, 父는 全原君 柳悅로서, 14歲 때 宣祖의 第6女인 貞徽翁主를 맞이하여 都尉가 되었다.

宣祖 崩御後 柳永慶은 永昌大君을 世子로 翁립하였다 하여 大北派인 鄭仁弘·李爾瞻 등의 탄핵으로 賜死되었으며, 禍가 全昌君 柳廷亮에 게도 미쳐 光海君 4年(1612年)에 古阜로 流配되었으며, 11년에는 機張으로 移配되었다가 仁祖 反正으로 풀려나 封爵이 거듭되면서 品階가 正一品 成祿大夫에 이르렀다. 沒年은 第18代 顯宗 4年(1663年)이며 享年 73歲였다.

따라서 遺物인 後綬는 지금으로부터 320年前의 것으로, 一品이 佩用한 雲鶴金環綬에 해당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出土된 綬는 2個였으나 하나는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어 研究對象에서 제외하고 다른 하나를 가지고 살펴

Ⅱ. 朝鮮朝 冠服에 보이는 綬	Ⅲ. 遺物에서 본 綬
맺음말	

보기로 하였다.

이에 있어 참고삼아 古代 中國에서의 綬가 생겨난 淵源과 그 變遷을 먼저 간략하게 더듬어 보고, 다음에 朝鮮朝에 있어서의 冠服에 나타난 後綬制度和 遺物에서 볼 수 있는 後綬를 比較檢討해 보기로 한다.

Ⅰ. 古代 中國에서의 綬의 發生淵源과 變遷

綬는 元來『佩組韞維』를 뜻하였다. 곧 綬는 佩玉을 結受하는 組를 일컬었던 것이며, 韞(蔽膝)을 連結하는 維를 가르켜 말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組維는 땅은 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多繪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通稱해 온 것 같다.

그런데 「爾雅」釋器에서 보면 『綬綬也』(綬는 綬이다)라 하고, 疏에 『所佩之玉 名綬 繫玉之組 名綬 以其繫之綬玉 因名其綬曰綬』(佩玉하는 곳을 綬라 한다. 玉을 엮어매는 組를 綬라 한다. 綬玉을 엮어매으로써 그 綬를 綬라 한다.) 하였듯이, 綬는 처음에 佩玉의 組綬를 일컫는 것이었다. 이 綬 곧 佩組를 좀더 알아보기 위해 「後

漢書」輿服志에서 佩玉에 관한 說明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古者 君臣佩玉 尊卑有度 上有韍 徐廣曰 韍如巾 蔽膝 貴賤有殊 佩所以章德 服之衷也 韍所以執事 禮之共也 故禮有其度 威儀之制 三代同之 五霸迭興 戰兵不息 佩非戰器 韍非兵旗 於是解去韍佩 留其係璲 徐廣曰 今名璲爲璲 以爲章表 故詩曰 鞞鞞佩璲 此之謂也 鞞鞞佩玉貌 璲瑞也 鄭元箋曰 佩璲者 以瑞玉爲佩 佩之鞞 鞞然 韍佩既廢 秦乃以采組 連結于璲 光明章表 轉相結受 故謂之綬 漢承秦制 用而弗改 故加之以雙印 佩刀之飾 至孝明皇帝 乃爲大佩 衝牙 隻瑠璜 皆以白玉』

(옛날에는 君·臣이 佩玉하여 尊卑에 法도가 있었고, 위에는 韍《徐廣은 韍은 巾과 같은 것으로 蔽膝이라 하였다》이 있어 貴賤에 다름이 있었다. 佩는 德을 밝힘으로써 服의 衷(中)이요 韍은 事理를 지키므로써 禮의 共(恭)이다. 故로 禮에는 法도가 있다. 威儀의 制度 三代가 같다. 五霸가 서로 바꾸어 일어나 戰亂이 그치지 않은 가운데 佩는 戰器가 아니며 韍은 兵旗가 아니라 하여 이에서 韍과 佩는 解去되었으며, 係璲는 그대로로서 《徐廣은 지금 이름의 璲는 綬이라 한다 하였다》씨 章表를 삼았다. 故로 「詩經」에서의 鞞鞞佩璲는 이를 말한다. 《鞞鞞은 佩玉의 모습이다. 璲는 瑞이다. 鄭元의 箋에 이르기를 佩璲란 瑞玉을 가지고 佩로 삼고 있으며, 佩玉의 아름다운 모양을 鞞然이라 한다 하였다.》 韍과 佩가 이미 폐지되었다가 秦에서 采組를 가지고 璲에 연결하여 밝게 章表한 것이 바뀌어 結受함으로써 이를 綬라 이르게 되었다. 漢은 秦制를 계승하여 사용하고 고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雙引·佩刀의 장식을 이예다 더 하였다. 孝明皇帝에 이르러 大佩를 만드니, 그 衝牙·隻瑠璜은 모두 白玉으로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禮記」玉藻에서 佩玉과 이를 結受하는 綬를 들어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天子佩白玉 而元組綬 公侯山元玉 而朱組綬 卿大夫水蒼玉 而緇組綬 士佩璠玞 而緇組綬 緇亦黃色 綬者 所貫佩相承受也』

(天子는 白玉을 차되 元組綬로 하고, 公侯는

山元玉을 차되 朱組綬로 하고, 卿大夫는 水蒼玉을 차되 緇組綬로 하고, 士는 璠玞를 차되 緇(黃)組綬로 하였는데, 綬란 佩玉을 꿰어서 承受하는 것이다.)

이로써 古代 中國에 있어 組綬를 綬라고 일컬었으며 그 役割도 알 수 있다고 하겠는데, 前記한 바 雙印의 制가 생기고 나서는 綬를 가지고 印綬를 指稱하는 경우도 있어, 字典에도 『인끈수』라 하고 있으며, 「急就篇」注에서는 『綬受也 所以承受印環』(綬는 受이다. 印環을 承受하기 때문이다.) 이라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蔽膝을 앞에 드리우고 처지지 않게 뒤에서 上端 양끝을 매는 끈 곧 韍維가 되어서는 이 또한 綬라 하였는데, 그 綬도 組綬였던 것이다.

韍에 관한 설명을 「路史」에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韍 冕服之鞞也 以韋爲之 舜始作以尊祭服 鄭注 乾鑿度云 占田漁而食 因衣其皮 先之蔽前 未之蔽後 後之易以布帛 獨存其前 重古道也』

(韍은 冕服의 鞞이다. 韋로써 이를 만들었다. 舜帝가 처음으로 말들어 써 祭服을 尊重히 하였다. 鄭注 「乾鑿도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아 食事を 하였고, 따라서 衣는 그 가죽을 가지고 먼저 앞을 가리웠을 뿐이고 뒤까지 가리울 줄은 몰랐다. 나중에 布帛으로 바뀌었는데도 前의 것이 그대로 存在하고 있으니 이는 古道를 重히 여김이다.)

이에 의하면 韍 곧 蔽膝은 原始社會에 있어 본시 간단한 身體의 保護 내지 恥部를 가리기 위한 무릅 앞을 가리우는 衣였는데, 그후 文化가 발전해 내려오면서도 계속 祭服 등에 이를 仍用하였음은 古道를 중하게 생각하는 데서이라고 하였거니와, 中國에는 일찍부터 飲水思想이 있어 그 根源에 대한 不忘祖德의 뿌리깊은 信仰 때문에 최초로 발명한 服裝인 韍에 대해서도 이를 잊지 않고져 그대로 仿行하여 고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蔽膝은 祭服에 있어 裳 밖의 장식물 같이 되어서는 格式化되었으니, 「隋書」禮儀志에서 보면 『袞衣有韍 白虎通云 上濶一尺 象天數 下濶二尺 象地數 長三尺 象三才 加龍火山 備三代之法』(袞衣에 韍이 있다. 白虎通에 「위의

넓이 1尺으로 하여 天數를 상징하였고, 아래 넓이는 2척으로 하여 地數를 상징하였으며, 길이 3尺으로 하여 三才를 상징하였다. 龍·火·山紋을 加하여 三代의 法을 갖추었다」하였다.) 이라고 있어, 그것은 길이 3尺에 아래 넓이 2尺 위 넓이 1尺의 梯形을 이룬 것이었다.

그리하여 「唐書」車服志에 와서는 『其頸五寸 兩角有肩 廣二寸 以屬革帶』(그 목이 5寸이고 어깨에 넓이 2寸의 兩角이 있어 革帶에 繫屬시켰다.) 라고 하여, 蔽膝 위 中間에 넓이 5寸, 兩端에 넓이 2寸의 革帶에 繫屬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從來의 뒤에서 잡아 매게 되어 있던 것을 없애고 革帶에 結束시키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에서 궁금한 것은 당초 韍을 뒤에서 結維하여 앞에 드리웠을 때 그 組綬의 殘餘分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하는 것이며, 韍을 革帶에 繫屬시킴으로써 組綬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 이를 또한 어떻게 處理하였을가 하는 것이다. 韍이 格式化되고 이에 章紋까지를 나타내게 되었을 때 그 組綬 또한 아름다운 것이었을 것이며 그것은 뒤에 맺은 다음 나머지를 멋드러지게 드리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 組綬는 佩玉을 잠깐 설명함에 있어 品階의 上下를 色으로써 구별하였음을 보아 왔거니와 이에서도 마찬가지였는지 모를 일이며, 또 그 짜임새에도 精粗의 구별이 있었을 것이고, 길이에도 長短의 差가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전혀 옛 文獻에 傳해음이 없다.

이러한 가운데 「後漢書」輿服志에는 袞服의 綬制를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乘輿 黃赤綬四采 黃赤紺纁 淳黃圭 長丈九尺九寸 五百首 諸侯王 赤綬四采 赤黃紺纁 淳赤圭 長二丈一尺 三百首……諸國貴人相國 皆綠綬三采 綠紫紺 淳綠圭 長二丈一尺 二百四十首 公侯將軍 紫綬二采 紫白 淳紫圭 長丈七尺 百八十首……九卿中二千石 青綬三采 青綬三采 青白紅 淳青圭 長丈七尺 百二十首……』

(乘輿[舉動時의 天子]는 길이 1丈 9尺 9寸이 되는 4采의 黃赤綬로서 黃色 바탕에 赤·紺·纁의 3色絲를 가지고 5百首로 짠 것이었으며, 諸侯王은 길이 2丈 1尺이 되는 4采의 赤綬로서 赤色 바탕에 黃·纁·紺의 3色絲를 가지고 3百首로 짠 것이었다. ……諸國의 貴人·相國

은 모두 길이 2丈1尺이 되는 3采의 綠紫綬로서 綠色 바탕에 紫·紺의 2色絲를 가지고 240首로 짠 것이었으며, 公侯·將軍은 길이 1丈7尺이 되는 2采의 紫綬로서 紫色 바탕에 白色絲를 가지고 180首로 짠 것이었고, ……九卿 중 2千石은 길이 1丈 7尺이 되는 3采의 青綬로서 青色 바탕에 白·紅의 2色絲를 가지고 120首로 짠 것이었다. ……)

여기의 綬는 소위 後綬로서, 이에서 볼 때 그것은 階級의 貴賤·上下에 따라 그 色彩의 配合와 長短이 달랐으며, 또한 짜임새에도 精粗의 구별이 있었다. 그런데 짜임새 곧 組織에 관해서는 同書에 『凡先合單紛爲一系 四系爲一扶 五扶爲一首 五首爲一文 采淳爲一圭 首多者系細 少者系麤 皆廣尺六寸』(먼저 單紛을 합쳐 1系를 만들고, 4系를 가지고 1扶를 만들며, 5扶로써 1首를 만들고, 5首를 가지고 1文을 만드는데, 바탕의 色彩는 하나로 한다. 首가 많은 것은 가늘고 조밀하며, 작은 것은 굵고 거칠다. 모두 넓이는 1尺6寸이다.) 이라 하고 있다. 이에서 아울러 알 수 있는 것은 이 後綬의 넓이와 길이라고 하겠는데, 곧 그것은 넓이 1尺6寸에 길이 2丈 내외가 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이 後綬를 韍의 뒤 繫帶가 없어지자 그 繫帶가 가지고 있던 裝飾的 要素를 그대로 살려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推理해 보는 것은 無理일런지 모른다. 아무튼 後綬는 韍 곧 蔽膝과 짝을 이루는 形式을 취하여 祭服에 갖추게 되었으며 그러면서 그것은 다분히 組綬로 된 韍의 繫帶의 發展的 過程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도 모른다는 點을 看過내지 無視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만도 하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冕 毳



「三禮圖」所載 後綬를 드린 形態

그런데 당시 後綬를 폭이 제법 넓은 데다 2丈 내외의 길이로 하였다는 것은 너무도 거창한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어떻게 뒤에 늘어놓는가가 또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있어 叢崇義의 「三禮圖」에서 보면, 이에서는 佩璲의 길이와 맞먹게 4等分하여 뒤 허리에 넓이만큼 겹쳐가며 펼쳐 帶革에 걸쳐 드리우고 있다.

그런가 하면 原田淑人은 그의 「漢六朝의 服飾」에서 綬는 綬囊이라는 것이 있어 이에 집어 넣어 두었다가 때에 따라 풀어 늘었다고 본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宋書」 禮儀志에 나오는 바 『鞶古制也 漢代著鞶囊者 側在腰間 或謂之傍囊 或謂之綬囊 然側以此囊盛綬也 或盛或散 各有其時乎』(鞶은 옛 制度이다. 漢代에 착용한 鞶囊이란 것은 허리 옆에 있어 傍囊이라고도 하고 綬囊이라고도 하였는데, 이 囊에 綬를 채웠다. 그리하여 때에 따라 채우기도 하고 풀어헤치기도 하였다.) 라는 기록이 곧 그것이라고 하면서, 그 理由를 들어 아마도 綬는 너무나도 길고 항상 懸垂하는 것이 매우 행동하는데 불편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폭 1尺6寸에 길이 2丈 내외가 되는 綬를 囊에 집어 넣었을 때의 그 부피와 무게를 상상해 볼 때, 이를 허리 옆에 찻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무리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傍囊에 관하여 「隋書」 禮儀志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鞶囊案禮 男鞶革 女鞶絲 東觀書 詔賜鄧遵 獸頭鞶囊一枚 班固與弟書 遺仲升 獸頭旁囊 金錯鉤也 古佩印 皆貯懸之 故有囊 稱或帶於旁 故班氏 謂以旁囊 綬印鈕也 今雜不佩印 猶存古制 極尊者金織成 二品以上服之 次以銀織成 三品已上服之 下以綵織成 五品已上服之 分爲三等』
(……東觀書에는 鄧遵에게 獸頭를 장식한 鞶囊 1枚를 詔賜하였다 하고, 班固의 與弟書에는 仲升에게 獸頭를 장식하고 金錯鉤를 한 旁囊을 주었다 하고 있다. 옛날에는 佩印하되 모두 싸서 간직하여 이를 걸게 되어 있었으므로 囊이 있어 帶 옆에 찻던 까닭에 班氏는 傍囊이라 하였다. 綬는 印鈕를 말한다. 지금은 비록 佩印하지 않음에도 아직 古制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할진데 傍囊 곧 綬囊은 원래 印章을 싸서

간직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後綬를 채워 넣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綬囊의 綬는 字典에서의 풀이 그대로 인끈을 말함이며, 나아가 위에서의 설명대로 印鈕를 말하는 것이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 그리하여 唐 武德年制에 보이는 바 『革帶以白皮爲之以屬佩綬印章鞶囊』(白皮로써 革帶를 하고 써 佩綬·印章의 鞶囊을 繫屬시켰다.)의 鞶囊도 後綬를 넣는 綬囊 아닌 印章을 간직하는 綬囊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革帶 뒤허리에 몇번 접어 걸치게 되어 있던 너무나도 긴 綬는 唐 이후 五代를 거쳐 宋代에 들어와 후기부터는 그 형태가 明에 있어서 볼 수 있는 모양으로까지 變容되었는데, 그 變遷에 대한 설명은 省略하기로 한다. 明制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皇帝 袞冕·皮弁服 綬(永樂三年定)

大綬 六采黃·白·赤·玄·纁·綠 纁質 小綬 三色 同大綬間施三玉環 龍文 皆織成

皇太子·親王 袞冕·皮弁服 綬(永樂三年定)

大綬 四采 赤·白·纁·綠 纁質 小綬 三采 間施二玉環 龍文 皆織成

文武官 朝·祭服 綬(洪武二十六年定)

(一·二品) 綬用綠黃赤紫四色絲 織成雲鳳四色花錦 下結青絲網 綬環二 用玉

(三·四品) 綬用黃綠赤紫四色絲 織成雲鶴花錦 下結青絲網 綬環二 用金

(五品) 綬用黃綠赤紫四色絲 織成盤鴟花錦 下結青絲網 綬環二 用銀鍍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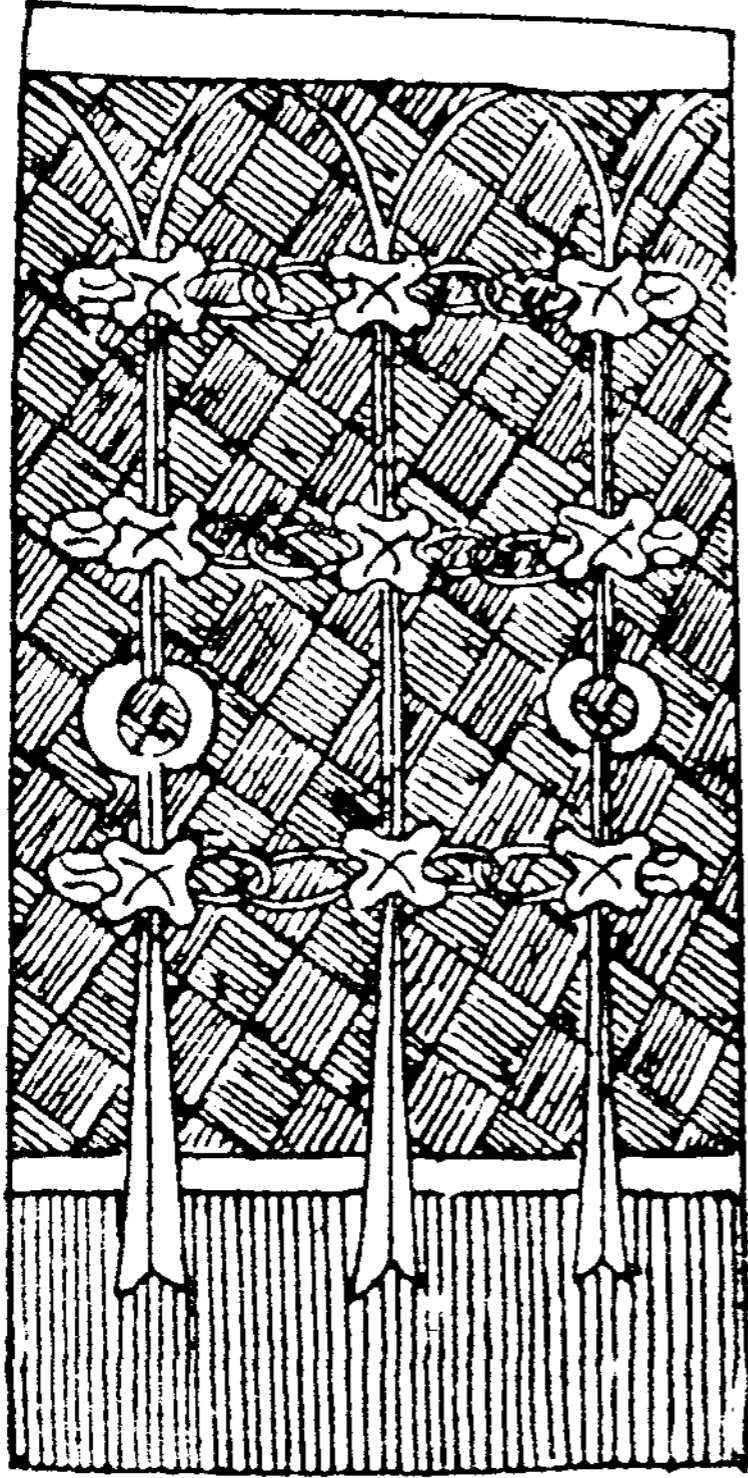
(六·七品) 綬用黃綠赤三色絲 織成練鵲花錦 下結青絲網 綬環二 用銀

(八·九品) 綬用黃綠二色絲 織成鸚鵡花錦 下結青絲網 綬環二 用銅

II. 朝鮮朝 冠服에 보이는 綬

朝鮮朝의 冠服 제정에 있어 國王의 冕服·遠遊冠袍를 비롯하여 百官의 朝服·祭服 등이 모두 明制를 본딴 것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린 後綬 또한 二等遞降原則을 적용하고 있기는 하되 明制와 大同小異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먼저 王 袞服과 絳紗袍의 後綬를 보면 같은 것으로, 國朝五禮儀序例 吉禮 祭服圖說 殿下冕



「世宗實錄」所載 冠冕圖 綬

服에는 『綬 以紅花錦爲之 施以雙金環』이라 하여 紅花錦을 가지고 만들었고 여기에 2個의 金環을 베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그 綬는 紅色 바탕에 꽃무늬가 있는 錦으로써 만든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러한 설명만 가지고서는 그 자세한 모습을 알 수 없으므로, 世宗實錄에 나오는 五禮儀 吉禮序例에 실려 있는 冠冕圖를 들어 알아 보면, 이의 大綬는 對角線의 바둑판식으로 짠 矩形의 바탕에 위에는 허리가 있고 밑에는 술을 늘인 絲網이 달려있다.

그리고 2줄로 된 小綬 3個를 大綬의 허리에다 같은 간격으로 나란히 달아 늘였는데, 小綬가 너뚱거리지 않게 이를 꿰어 늘이는 일종의 고리 장식이 大綬 표면에는 小綬 마다에 아래로 3個씩 있어, 여기에 꿰어서는 絲網의 위 3分の 1 정도에서 끝을 늘어뜨리고 있다.

또한 양 갓에 있는 小綬를 꿰어 늘인 둘째 고리와 끝 고리 사이에는 環이 있어, 여기에다 小綬를 아래 위에서 엮어매고 있다.

이러한 것을 制度化한 것이 國朝五禮儀序例에 나오는 祭服圖說에서의 殿下冕服 綬라고 하겠는데, 그림으로 보는 바로는 兩者의 모양이 거의

같다.

그런데 尙方定例에는 綬 改造時에 필요한 材料로서 『內拱 大紅雲紋紗 貳尺壹寸』과 後綬 織造에 필요한 材料로서 『大紅眞絲, 藍眞絲, 鴉青眞絲, 玉色眞絲, 深草綠眞絲, 後經白絲, 解紋綃次白絲, 邊絲次白絲, 曲去里次白絲……』와 網垂 造製에 필요한 材料로서 『大紅眞絲, 藍眞絲, 鴉青眞絲, 玉色眞絲, 深草綠眞絲』가 들어 있다.

이로써 볼 때, 綬는 겹으로 되어 있어 안감은 大紅色 雲紋紗를 사용하여 받친 것으로 걸은 大紅·藍·鴉青·玉色·深草綠의 五色絲로 織造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있어 英祖實錄을 보면, 23年 2月條에 『……例自尙方造成 而色則參酌五禮儀 赤青玄縹綠 去紋 而下段三百二十之制 亦依古禮爲之可也』라 있어, 後綬를 尙方에서 織造할 때 色은 五禮儀를 참작하여 赤·青·玄·縹·綠의 五采로 하되 無紋으로 하고, 짜는 방식은 古禮에 의하여 320首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있다.

여기에 無紋으로 한다 함은 英祖의 奢侈抑制를 위한 紋緞使用 禁止政策에 의한 것이었으며, 織造에 사용한 色絲에 있어 異同이 있기는 하나 그 까닭은 알 수 없는 가운데, 짜임새가 320首라고 하면 그것은 매우 精巧한 것이었다.

짜임새에 관하여는 前記한 바 「後漢書」輿服志의 記錄을 들어 설명하였거니와 참고삼아 明 洪武 26년에 제정된 袞服의 後綬에서는 皇帝 500首, 皇太子 330首, 親王 320首로서 500首면 10,000系, 330首면 6,600系, 320首면 6,400系가 되어, 이로써 그 精巧함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가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우리 國王의 것은 그들 親王禮에 준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大綬에는 앞에서의 冠冕圖에서 보아 왔듯이 大綬와 같은 色인 3個의 小綬가 달려있었고, 또한 2個의 金環이 間施되어 있었으며, 밑에 늘인 網垂 즉 絲網과 술도 大紅·藍·鴉青·玉色·深草綠 또는 赤·青·玄·縹·綠하여 大綬를 織造하는데 사용한 같은 色絲로 짜거나 만든 것이었다.

크기는 內拱이 길이 2尺1寸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에 網垂의 길이까지 합치면 앞에 차던 蔽膝과 같은 3尺에 가까운 것이었으리라고 보며, 幅의 넓이는 밝혀져 있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규모에 속했던 明 親王의 袞服 綬와 비교해 볼 때, 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明 親王制는 纁色을 바탕으로 하여 赤·白·纁·綠의 4采를 가지고 짠 것이었고, 3采의 小綬가 있다고만 하였지 몇 個가 달렸는지 밝혀져 있지 않으며, 2個의 玉環을 間施하였고, 龍紋이 있다 하였는데, 우리 國王의 것은 明帝로부터 보내온 九章服에는 『纁色粧花錦綬』, 國朝五禮儀序例 祭服圖說에는 『紅花錦綬』로 되어 있고, 이를 尙方定例와 「朝鮮王朝實錄」 등을 통해서 알아본 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것으로, 이에는 龍紋 아닌 花紋이 있고 玉環 아닌 金環을 間施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형태는 「大明會典」에 그려져 있는 皇帝 皮弁服의 大綬圖와 國朝五禮儀序例 祭服圖說에 실려 있는 殿下冕服 綬圖와 대체로 같다.

다음 朝臣의 朝服·祭服에서의 綬를 보면, 「經國大典」禮典 儀章條에 一·二品은 雲鶴金環綬, 三品은 盤鷓銀環綬, 四品은 練鵲銀環綬, 五·六品은 練鵲銅環綬, 七·八·九品은 鷓鴣銅環綬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을 가지고는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으므로 「經國大典」에 法制化하기 전에 太宗이 16年 正月에 冠服色을 설치하여 그 해 3월에 제정한 朝·祭服에서의 綬를 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一品 綬 用黃綠赤紫四色絲 織成雲鶴花錦 下結青絲網 綬環二 用金

二品 同上

三品 綬 用黃綠赤紫四色絲 織成盤鷓花錦 下結青絲網 綬環二 用銀

四品 綬 用黃綠赤三色絲 織成練鵲花錦 下結青絲網 綬環二 用銀

五品 綬 用黃綠赤三色絲 織成練鵲花錦 下結青絲網 綬環二 用銅

六品 同上

七品 綬 用黃綠二色絲 織成鷓鴣花錦 下結青絲網 綬環二 用銅

八品·九品 同上

(一品의 綬는 黃·綠·赤·紫의 4色絲를 사용하여 雲鶴花錦(구름과 학무늬의 꽃비단)을 織成하고는 아래에 青絲網을 맺고 金으로 만든 綬環

2個를 間施하였다.

二品의 綬는 一品의 것과 같다.

三品의 綬는 黃·綠·赤·紫의 4色絲를 사용하여 盤鷓花錦(독수리가 선회하는 무늬의 꽃비단)을 織成하고, 아래에 青絲網을 맺고 銀으로 만든 綬環 2個를 間施하였다.

四品의 綬는 黃·綠·赤의 3色絲를 사용하여 練鵲花錦(때까치 무늬의 꽃비단)을 織成하고는 아래에 青絲網을 맺고 銀으로 만든 綬環 2個를 間施하였다.

五品의 綬는 黃·綠·赤의 3色絲를 사용하여 練鵲花錦을 織成하고는 아래에 青絲網을 맺고 銅으로 만든 綬環 2個를 間施하였다.

六品의 綬는 五品의 것과 같다.

七品의 綬는 黃·綠의 2色絲를 사용하여 鷓鴣花錦(뜸북새 무늬의 꽃비단)을 織成하고는 아래에 青絲網을 맺고 銅으로 만든 綬環 2個를 間施하였다.

(八品·九品의 綬도 七品의 것과 같다.)

이에서는 品階의 等威를 가르는데 있어 綬를 織成하는 色絲의 가지數와 紋樣 및 綬環의 구별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때 제정된 이러한 綬의 制度는 世宗 8年 2월에 儀禮詳定所의 確定을 거쳐 經國大典에 이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國王의 後綬와 朝臣의 後綬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우선 綬를 織成하는 色絲의 가지수에 차이가 있으며, 짜임새에 精粗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王의 後綬에는 기록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國朝五禮儀序例所載 祭服圖說 綬圖에서 보면 분명히 小綬가 달려 있으며, 朝臣의 後綬에는 이것이 없다. 이것은 「大明會典」禮部 冠服條에서 보건대 明制도 동일하여 皇帝·皇太子·親王·世子·郡王은 그 後綬에 小綬가 달렸고 文武官 冠服 後綬에는 小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紋樣을 보더라도 國王의 것은 다만 粧花錦이라고 하여 꽃무늬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朝臣의 것은 雲鶴花錦·盤鷓花錦·練鵲花錦·鷓鴣花錦 하여 여러 紋樣이 있어 사용하는 色絲와 더불어 이로써 品階를 가르고 있다. 紋樣도 明制는 皇帝·皇太子·親王이 龍紋이고 世子·郡王은 없으나 文武官은 雲鳳花錦이 더 있고 以下는 같다. 이에서 볼 때 明 親王禮에

따랐다는 王 後綬에 龍文이 없다는 것은 그들 世子·郡王禮에 준하였다는 것이 되며, 朝臣은 그들에 比하여 二等遞降原則을 준용하였다는 것이 될 것이다.

또 綬環에 있어서도 國王은 用金하였는데 朝臣은 用金·銀·銅하고 있다. 이것도 明制는 皇帝 이하 郡王까지 用玉이고 文武官은 用玉·金·銀鍍金·銀·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國王의 것을 用金하였다는 것은 理解하기 어려우며, 明이 그 그 紋樣에 있어서도 그러하거나와 우리 國王의 權威를 어떻게 해서든지 낮추고자 한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그대로 흘려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垂網이 朝臣의 것은 靑絲網인데, 國王의 것은 綬의 色絲를 모두 사용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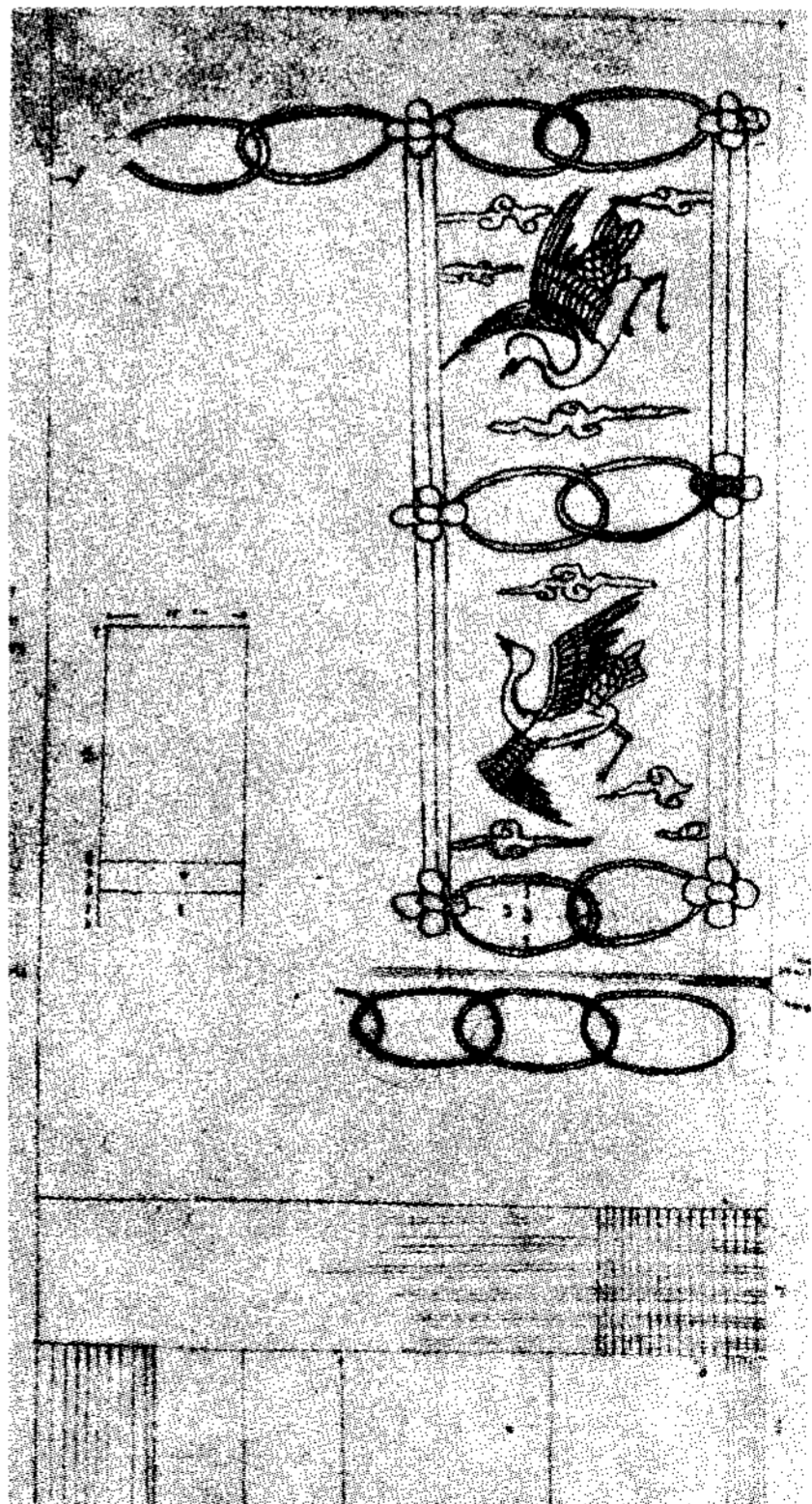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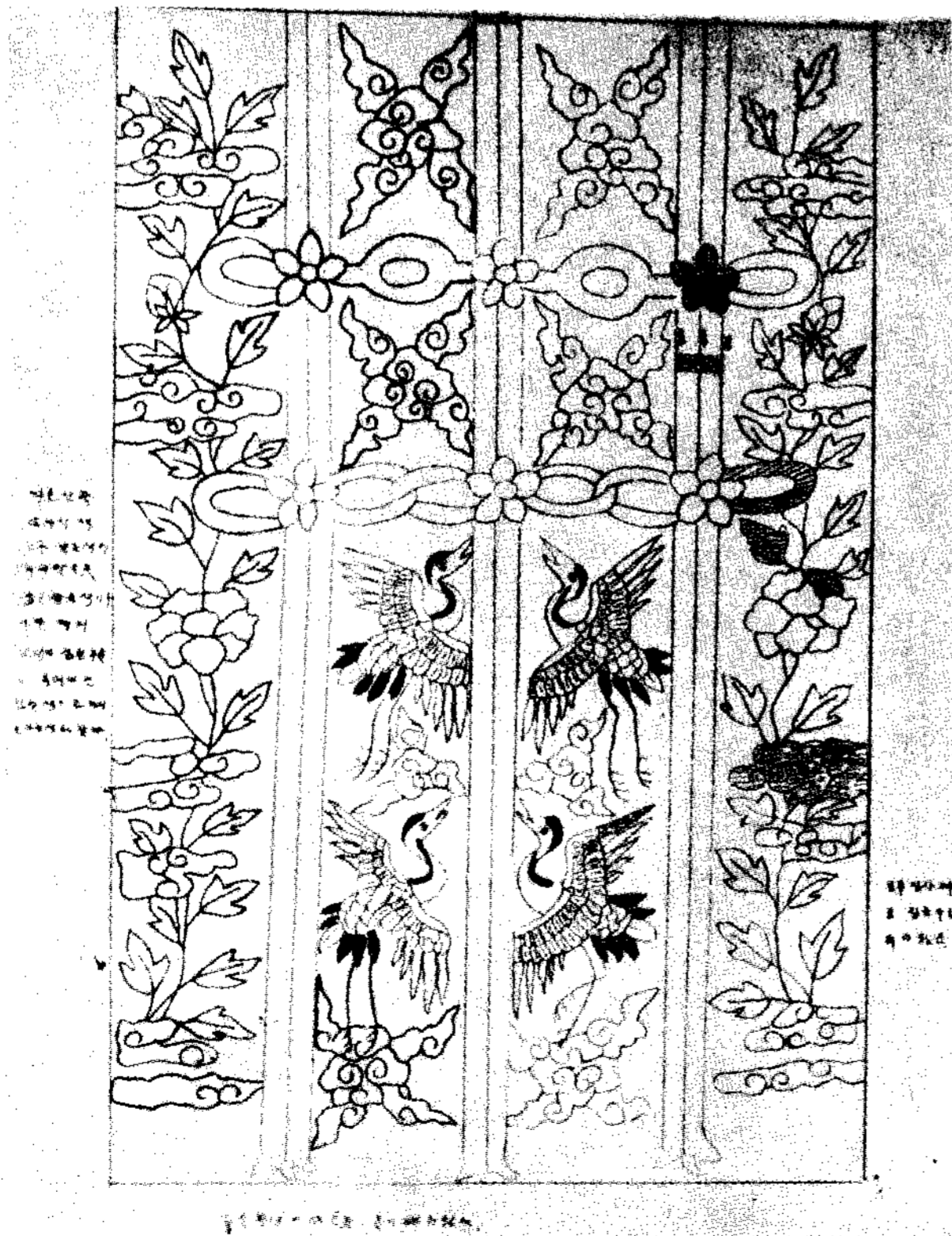
Ⅲ 遺物에서 본 綬

이 遺物의 着用者는 全昌君 柳廷亮으로서 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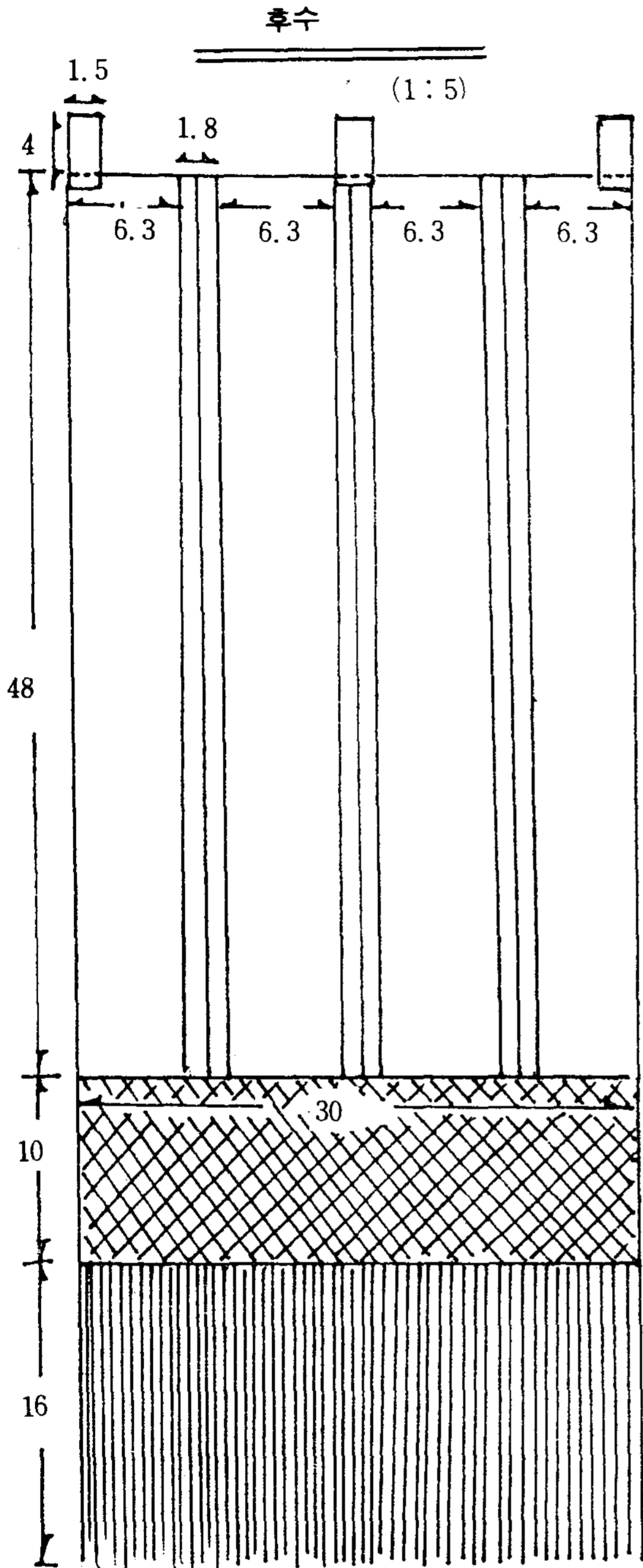
一品 成祿大夫였다. 그러므로 그 後綬는 前述한 바 黃·綠·赤·紫의 4色絲를 사용하여 雲鶴花錦을 직성한 것에 金環 2個를 間施하였으며 靑絲網을 下結한 것이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그 크기와 모양의 實測과 더불어 알아 보기로 한다.

色은 누르스름하게 脫色하여 분간하기 어려우나 자세하게 觀察해 보면 본 바탕은 붉은 기운이 돌고, 網垂는 푸른 기운이 돈다. 따라서 質 곧 바탕은 붉은 色의 것이며 여기에 雲·鶴·花紋을 직성하고, 밑에 靑絲網을 연결하였다는 것이 된다.

크기는 幅이 30.6cm 가량이고, 길이는 主體 18cm, 絲網 10cm, 絲網에 下垂한 술 16cm 가량으로 합쳐 약 74cm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위에는 고리가 左와 右 및 中央에 3個가 달려 있는데, 크기는 幅 1.5cm, 길이 4cm 가량이 된다. 主體와 고리는 겹으로 되어 있는데, 主體는 뒷감이 花紋이 있는 비단類이고 겹감이 아주 부드러운 고급 비단類로 되어 있다. 이것이 錦으



全昌君 遺物 後綬



全昌君 後綬 實測圖

로 일컬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主體에는 幅 1.8cm의 줄이 6.3cm 간격으로 가운데에 3줄을 세로로 수놓았으며, 이 줄게는 양 것과 가운데에 金絲로 線을 치고 있어 마치 2줄로 보이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줄의 上端에서 10.5cm 아래와 19.5cm 아래에는 줄 가운데에 直徑 3cm의 梨花紋이 각각 수놓아져 있으

며, 윗쪽 梨花紋을 중심으로 하여서는 폭 1cm, 크기 3cm 남짓한 橢圓形의 고리를 左側, 左中間, 右中間, 右側하여 4個를 수놓고 있는데, 左·右側 고리는 梨花紋에 直結되어 있고, 左中間·右中間의 고리는 고리와 같은 幅인 1cm의 줄로써 양쪽을 꿰어 연결시킨 것처럼 하여 수놓고 있으며, 아래쪽 梨花紋을 중심으로 하여서는 같은 크기의 고리가 左側과 右側에는 直結되어 수놓아져 있고, 左中間과 右中間에는 고리 2個를 연결하여 梨花紋에 直結되도록 수놓아져 있다. 그리고 이에서도 梨花紋의 꽃잎과 꽃술, 고리 둘레에는 金線을 두르고 있다.

이로써 볼 때 비록 朝臣이 착용하는 朝·祭服의 綬에는 小綬가 달려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의 줄은 마치 小綬와 같고, 梨花紋의 綬에 있어 小綬가 너울거리지 않게 처리한 것과 흡사하여 이에도 小綬의 흔적만은 남겨 놓고 있다고 할 것이다.

主體에 나타난 紋樣은 小綬의 형태를 지닌 듯한 左·右側의 줄을 경계로 하여 兩側에 牡丹花를 중심으로 두고 위와 아래도 앞사귀와 사이 사이에 雲紋을 수놓고 있는데, 이에서도 꽃잎·꽃술·앞사귀·구름마다 둘레를 공드려 金線으로 두르고 있다.

또 가운데의 줄을 경계로 하여 左中間과 右中間에는 위로부터 아래로 雲紋·고리·雲紋·鶴紋·작은 雲紋·鶴紋·雲紋의 순으로 이들을 수놓고 있는데, 이에서도 金線으로 구름과 鶴의 윤곽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鶴의 긴 목의 등과 꼬리는 紫色인 듯한 색이 바랜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어, 主體에 나타난 雲·鶴·牡丹·牡丹잎 등 이를 黃·綠·赤·紫의 四色絲를 가지고 수놓았음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絲網은 색이 바래진 하였으나 규정대로 靑色임이 분명한데, 漁網을 뜨는 식으로 공드려 뒀으나 간격이 촘촘하여 구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서 오히려 요즈음의 레이스編物을 연상케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달린 술은 絲網과 같은 색의 것으로 多繪로 보이며, 이를 촘촘히 연결하여 늘어뜨리고 있다.

金環 2個를 間施한 位置는 밝혀져 있지 않은데, 이것은 上端 가까이 左右에 단 것 같다.



全昌君 後綬 紋樣圖

이상과 같은 綬가 脫色하지 않고 原色 그대로 保存된 것이었다고 하면, 여러 紋樣의 配置, 정교한 繡의 솜씨, 4色絲의 調和 등으로 보아 아주 호화롭고 멋진 藝術品이 되고도 남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맺 음 말

全昌君 柳廷亮의 遺物인 後綬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것이 中國에서 건너온 服制인만큼 먼저 古代中國에서의 發生過程을 나름대로 더듬어 보았고, 다음 朝鮮朝에 들어와 制度化된 後綬의 制를 살펴 보면서 遺物에 나타난 바 모습을 觀察해 보았다.

古代中國에 있어서의 綬는 組綬를 말한다. 舜帝가 처음 祭服을 만듦에 있어 不忘組德이라는 뜻에서 原始時代에 처음으로 착용하기 시작한 蔽前의 衣인 韍 곧 蔽膝을 裳 앞에 더하여 이는 事理를 지킴이라 하여 禮의 恭으로 삼았고, 허리 양옆에 佩玉을 드리워서는 이는 德을 밝힘이라 하여 服의 中으로 삼았는데, 韍을 착용하는

데는 위 左右 양쪽에 組綬를 달아 뒤에서 結束하여 나머지를 늘이었고, 佩玉을 懸垂하는데도 역시 組綬로써 하였다. 綬를 또 字典에 『인끈』이라 하였음은 그후 佩印하는 制度가 생겨남에 印章을 綬囊에 채워 드리운 데서이다.

이러한 組綬가 後綬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은 蔽膝을 간편하게 革帶에 繫屬시키게 됨으로써부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은 蔽膝의 繫帶라 할 組綬를 뒤에서 結束하고 늘인 멋드러진 나머지를 禮服의 調和味를 살린다는 意味에서도 아주 除去하기가 아쉬워 그 대신 별도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이 後綬가 아닌가 推理해 보는 데서이다. 그리하여 이것이 처음에는 2丈 내외나 되는 긴 것으로서 이를 몇번 革帶에 접어 걸쳐 땅에 끌리지 않게 하였는데, 이것을 後代에 와서는 蔽膝과 앞·뒤에 對를 이루어 알맞는 크기로 만든 것이라고 본다.

이 後綬는 組織하는데 있어서의 色絲의 가지數, 짜임새, 綬環의 差異로써 君과 臣은 물론 臣에 있어서도 그 品階를 가리었다. 明의 이러한 後綬制는 朝鮮朝에 들어와 또한 君臣의 朝·

祭服에 制度化되었으니 대개 그것은 明制에 比하여 二等遞降原則을 따른 것이었으며, 이는 「國朝五禮儀」의 祭服圖說 및 「經國大典」 禮典 등에 실려 있어 이를 중심으로 하여 간단히 들어 比較해 보았다.

이러한 가운데 遺物의 着用者의 身分이 都尉로서 正一品 成祿大夫에 이른 분이었기 때문에 그 後綬도 「經國大典」에 規制된 一品의 後綬와는 달리 좀 독특한 點이 있지 않나 자세히 살펴 보았으나 오히려 이 後綬를 가지고 보는 바에는 그것이 一品에 해당하는 後綬이면서도 아주 겸소한 것이었음을 發見할 수 있었다. 다른 것을 예로 들어 보면, 鶴紋이 左中間 4個, 右中間 4個 하여 8個로 되어 있으며, 上部에 2段, 下部에 2段이 있어 여기에도 雲紋을 수놓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다만 이 遺物 後綬에 色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左·右 兩側에 牡丹花가 수놓아져 있고 小綬에 비길 수 있는 線條上에 드문 드문 梨花紋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儀賓의 표지인지의 與否는 밝힐 길이 없다.

參 考 文 獻

後漢書 輿服志
宋 書 禮儀志
隋 書 禮儀志
唐 書 車服志
宋 史 輿服志
大明會典 禮部
爾雅 釋器
禮記 玉藻
三禮圖(聶崇義)

漢六朝の服飾(原田淑人)

朝鮮王朝實錄
國朝五禮儀
經國大典
尙方定例